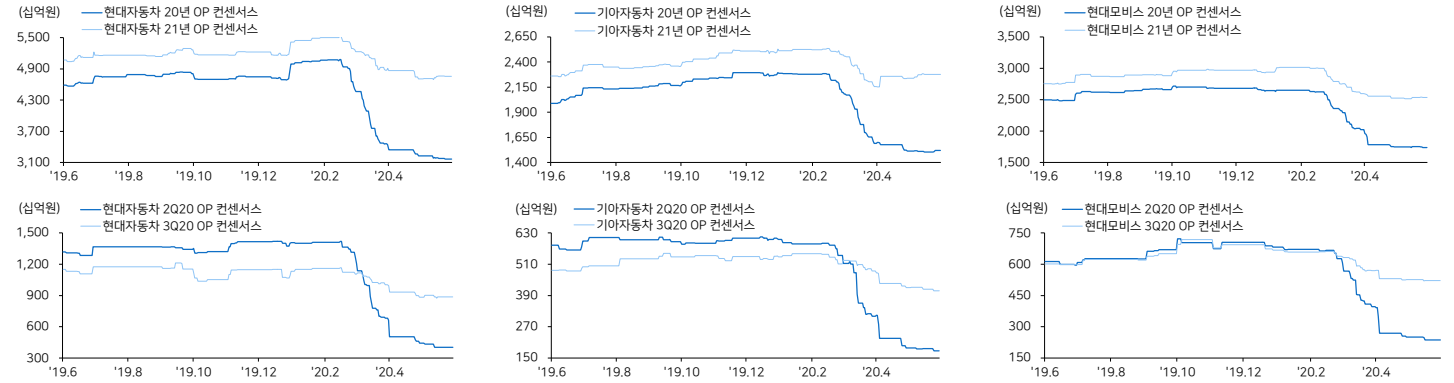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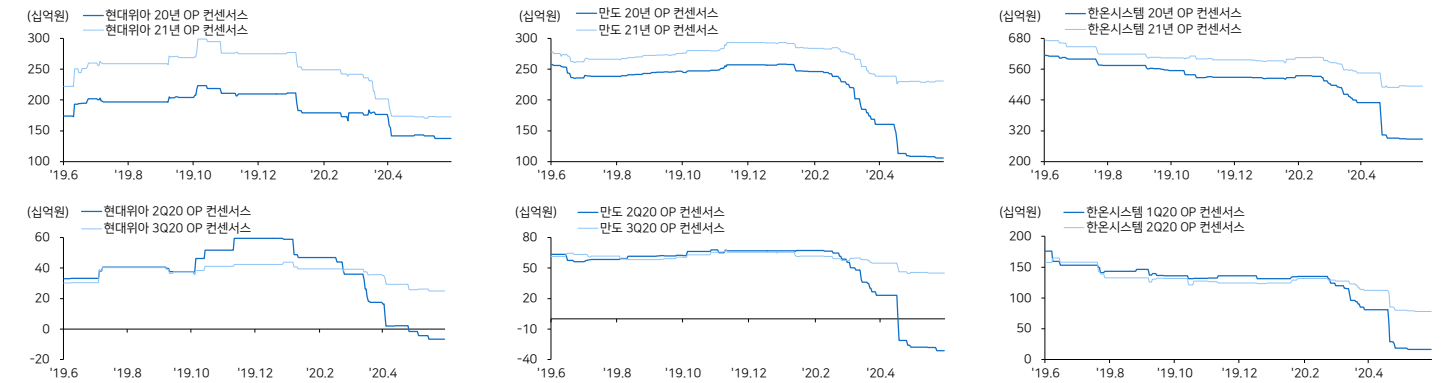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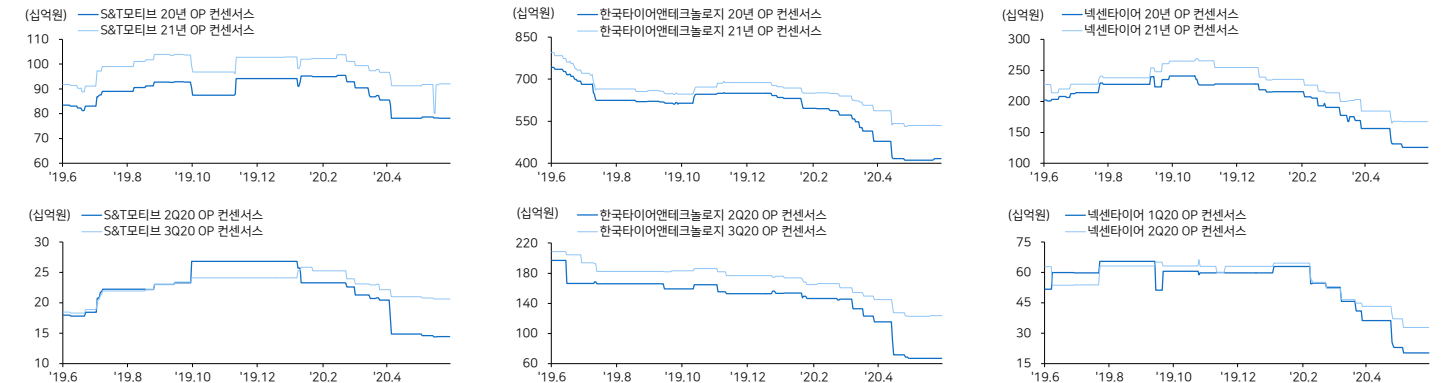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기아차·제네시스, 글로벌 경쟁력 입증...美 품질조사 1위 (오피니언뉴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J.D.Power가 발표한 '2020 신차품질조사(IQS: Initial Quality Study)'에서 기아차가 전체 브랜드 중 1위를 차지. 이는 해당 조사에서 3년 만에 전체 1위를 탈환한 것. 제네시스는 프리미엄브랜드에서 1위를 차지. <https://bit.ly/2CE0EzN>

2021 북미 올해의 차 후보 공개. 'GV80/신형G80/아반떼'등 올라

북미에서 발표된 최고의 차를 가리는 '2021 북미 올해의 차' 후보 리스트가 발표된 가운데, 제네시스와 현대기아차가 다시 한번 정상상을 노림. 승용 및 SUV 부문 후보에 GV80와 신형 G80, 신형 아반떼, 신타페 F/L, 셀토스 등이 오름. <https://bit.ly/2YzFpby>

광주 제조업 근간 '기아차 광주공장 휴업 장기화 우려 (연합뉴스)

광주 제조업의 근간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휴업이 길어지고 있음. 2공장의 스포티지 생산라인이 25일부터 30일까지 조립업수 기준 4일간 휴업에 들어간 데 이어 7월에도 휴업이 이어질 전망. <https://bit.ly/31f5kkm>

145만원 재난지원금도 받았겠다...자동차 사는 미국인들 (머니투데이)

코로나19(COVID-19)로 침체되면서 멈춰선 미국 자동차 공장 생산라인이 다시 돌고 있음. 코로나19로 억제돼 있던 수요가 시장으로 나오면서 미국 내 대부분의 공장들이 판매대(대규모 유행) 이전 생산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분석. <https://bit.ly/3i4VehN>

제네시스, 'G70 부분변경'도 '출시입박'... 마지못해 퍼즐 'GV70' (아시아타임즈)

출시를 앞둔 제네시스 'G70 부분변경' 모델 실차가 유출되면서 온라인이 뜨겁게 달아오름. 현대자동차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는 G70 부분변경 모델과 신차 'GV70'을 올 하반기 출시하고 라인업을 완성. <https://bit.ly/2Nup40L>

'차박' 인기에 후업계 들쭉...현대차, 내달 초 1트럭 개조차 출시 (뉴시스)

차에서 숙식을 즐기는 '차박'의 인기가 뜨거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막혀서 전국의 캠핑장은 주말마다 자리가 없고, 절반 가량은 차박 캠핑족으로 채워짐. 완성차업계도 차박 트렌드에 맞춰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https://bit.ly/2Z8fkz7>

'미국·유럽 자동차 판매, 바닥 찍고 회복세' (한국금융)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부진을 겪은 세계 자동차 시장이 최근 회복세에 들어섬. 국가별로 4월 전년동월비 46.6% 감소했던 미국 자동차 판매는 5월 29.5% 감소로 감소폭이 절반 가까이 감소. <https://bit.ly/31j25iY>

엔비디아·벤츠, SAE 레벨4 수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IT비즈니스)

엔비디아가 메르세데스-벤츠와 차량 내 컴퓨팅 시스템과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 첨단 컴퓨팅 아키텍처 개발이 목표.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시스템은 2024년에 메르세데스-벤츠의 차세대 차량에 적용됨. <https://bit.ly/3g29zPp>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